

From : Ken Min  
Date : April 17, 2010  
Subject : FW : 위대한 멈춤

# '위대한 멈춤'



암스트롱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경기에서 5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역사상 최고의 사이클리스트'라는 명예를 부여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또 다른 명예로운 타이틀이 하나 더 주어졌습니다. '인간 승리의 신화'라는 타이틀이 그것입니다.

그는 고환 암이라는 치명적이고 무서운 병을 얻어 2년간 고생을 하였고 그의 5연패 뒤에는 그러한 절대 불가능을 이겨낸 불굴의 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5연패는 단순한 승리의 연속이 아니라 묵직한 인간 감동의 스토리로 미국인들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투르 드 프랑스는 6월과 7월에 걸쳐 24일간 열리는 유서 깊은 사이클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이고 열정적인 스포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프스의 푸르고 울창한 숲길,  
피레네 산맥의 깎아지른 듯한 바위 사이의 아찔한 길,  
수평선을 따라 아늑하게 펼쳐지는 프랑스 해변의 시골길을 거쳐  
마침내 영광의 종착점인 상젤리제 거리의 개선문에 이르는  
그야말로 환상의 코스입니다.



안 올리히를 바보라고 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암스트롱의 그러한 그의 명예와 신화 뒤에는 감추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시는지요.

그가 안 올리히라는 독일 선수입니다. 그는 암스트롱이 우승을 하는 5년 동안 계속해서 2위에 머물렀던 비운의 선수입니다. 그야말로 올리히에게 암스트롱이라는 존재는 숙적이며 극복해야 할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03년 대회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던 7월 22일 불과 15초 차이로 올리히를 앞서 가던 암스트롱이 어이없게도 구경을 나왔던 한 어린아이의 가방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뒤를 바짝 쫓고 있던 올리히가 쾌재를 울리며 지나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올리히는 그를 지나쳐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암스트롱은 이미 4년이나 연속으로 우승한 선수였습니다. 자신은 4년간 줄곧 그에게 뒤져 2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챔피언이 되는 것은 신의 뜻이라고 여길 수 있는 절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호의 기회의 순간 올리히는 자신의 사이클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암스트롱이 다시 페달을 밟고 출발하는 순간 올리히도 페달을 밟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결국 올리히는 61초라는 간발의 차이로 우승을 암스트롱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2003년 암스트롱의 위대한 금자탑이 되었던 5연패는 올리히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암스트롱(左)과 마요(中)가 넘어지자 올리히(右)가 추월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참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그를 바보라고 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넘어진 암스트롱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주었던 올리히를 사람들은 '위대한 멈춤', '신성한 양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의 우승보다 더 값진 위대한 인간 승리이며 영원한 스포츠맨십의 표상이요, 원숙한 인간미를 지닌 인격의 표상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한국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국 교육은 경쟁을 실질적 교육 목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경쟁에만 강한 인간을 기르고 있습니다.

